

제21회
가고파
여름문학
축제

21th gagopa summer literature festival

일시 | 2020. 8. 29(토) 15:00

장소 | 굿데이홀(주식회사 무학 대강당)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2길 22, 2층

(봉암동 470-5) ☎ 070-7576-2017

주최 | 마산문인협회 후원 | 창원시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과 함께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초대합니다

invit at ion

가을의 길목에서 마지막 여름을 노래하려 합니다. 코로나-19로 미루었던
'가고파 여름 문학 축제'를 마산회원구 봉암동의 굿데이홀Good day Hall에서
개최합니다.

스물한 번째 맞이하는 가고파 여름 문학 축제에 회원 여러분과 창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는, 회원들의 시 낭송과 수필 낭송, 문학 독자의 시 낭송을 비롯하여
성악가의 아름다운 가곡을 곁들인 무대에다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합니다. 특히
히 인문학 강연 '내 손끝에 맺히는 땀은 Money?'는, 꽉꽉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본 행사에 앞서 130여 개국의 주류를 통해 세계 문화를 볼 수 있는 굿데이
뮤지엄 견학과 굿데이홀의 수채화를 관람할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전염성 유행병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문학을 가끼이하면서 이겨내시
길 기원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후, 행사장에 오실 때 마스크 준비하셔서
즐거운 시간 갖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마산문인협회장 안화수

프로그램

program

진행 | 민창홍(시인·마산문인협회 부회장)

◆ 제1부 15:00~16:00

- 굿데이뮤지엄 견학 및 굿데이갤러리 관람

◆ 제2부 16:00~17:30

- 개회
- 국민의례
- 초대 인사 안화수(마산문인협회 회장) • 2
- 축사 윤형근(마산예총 회장)
- 축시 낭송 〈개해엄으로 바다를 건너다〉 김미숙(시인·마산문협 직전 회장) • 4
- 가고파여름문학축제 의의
- 시 낭송 〈어시장 풍경〉 김미윤(시인·문학평론가) • 5
- 축하 공연 〈별〉(이수인 곡) 이나원(소프라노)
〈Non ti scor dardi me/ 나를 잊지 말아라〉(E.O.Curtis 곡)
- 시 낭송 〈마산, 바다에서〉 이경주(시조시인) • 7
- 수필 낭송 〈여백의 미〉 노갑선(수필가) • 8
- 인문학 강연
- 시 낭송 〈들국화라는 꿈〉 서성자(시조시인) • 14
- 독자 시 낭송 〈그리운 역〉(김교한 시조) 박소정(창원 시민) • 15
- 시 낭송 〈이를테면, 종착역에 눈이 쌓이고〉 김인애(시인) • 16
- 수필 낭송 〈빵과 철쭉꽃〉 윤진철(수필가) • 17
- 시 낭송 〈여름 하늘, 새벽 구름〉 우무석(시인) • 19
- 축하 공연 〈마중〉(윤학준 곡) 어달호(바리톤)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Rolf Lovland 곡)

◆ 제3부 17:30~

- 저녁 식사 (주)무학 구내 식당
- 폐회

개해엄으로 바다를 건너다

김미숙 시인·마산문협 직전 회장

세상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토끼섬 떠나
지구를 반 바퀴나 건너온 지금도

앞서가는 이들은 처음부터
평영 배영 접영
잘도 헤엄쳐 가는데

뱃길은 파도 너울을 따라가고
사랑은 아픔의 까치놀 길잡이로 세운다는데

아직도 나는
막막한 세상 바다에 빠져
개해엄을 길잡이로 허우적거리며 간다

어시장 풍경

김미윤 시인·문학평론가

여명을 깨치고 만선의 깃폭 바람따라 세우며
포구로 돌아오는 당당한 어부의 이두박근에
선잠 깐 팽이갈매기 울음소리 휘몰이로 쌓이면
어시장 경매사의 현란한 수신호는
해조음 섞인 뱃고동 소리와 어우러져
인고의 거친 운명을 한껏 지휘한다
생멸의 찰나에 물이드는 선착장이
어느덧 갯내음으로 가득 채우니
모두 다 앞만 보며 걸어온 진동골목엔
도미, 광어, 고등어 비늘이 펄펄 살아 번뜩이고
건너편 좌판 위 제철 맞은 쑥, 냉이, 달래도
행인들 식욕을 억척스레 퍼나른다
돌문어 뺨판처럼 엉켜붙는 기난마저 떨쳐내려
해장국 한 그릇에 생존의 숙연한 의미를 채울 때
오늘도 식구들 생계 짊어진 아낙네의
땀과 눈물이 뜯어내는 음률 같은 목소리가
세월도 꺾지 못한 일상의 행간 속 빗장을 풀어
아침 안개 묻어나는 허공에 풍경으로 피어난다



소프라노 이나원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일반 대학원 졸업
- Austria Salzburg Mozarteum 주최 International Sommer Akademie 수료
- 이탈리아 A.I.ART 아카데미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 오페라 〈사랑의묘약〉 〈나비부인〉 〈춘희〉 〈춘향전〉 〈마술 피리〉 등 출연
- 제주국제관악제 · 창원시립교향악단 · 진주관악단 · 김천시립교향악단 · 미국 Union City Orchestra · 아르끼 오케스트라 협연
- 구노 미사 · 바하 b단조 미사 · 칸타타 ‘조국’(김규환 곡) 솔리스트
- 독창회 개최
- 열린 음악회, 환경음악회, 강변음악회, 마산 영남 가곡부르기 10주년 기념 음악회, 테너 김신환과 함께하는 새해음악회, 4인 음악회, 마산 부마항쟁 기념음악회, 사랑과 감사의 콘서트 등 음악회 수백 회 출연
- KBS FM정다운 가곡 출연
- 흉덕식 신작가곡 ‘그리움’ 음반 제작
- 2017 뉴욕 카네기홀 Winter Festival 초청 연주
- 뉴저지주 평화공로상 수상
- 창원시립합창단 수석단원 · 파트장 역임
- 현재 기독음대 교수, 경남 솔리스트 양상을 트레이너, 창원 글로벌 성악회 회원, 창원시립예술단 소속



바리톤 어달호

-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성악전공 졸업
- 프랑스 말메종 국립음악원 성악과 디플롬(Diplôme) 및 최고연주자과정 (Perfectionnement) 만장일치 졸업
- 프랑스 UPMC, Clé d'or, Bellan 국제콩쿨 입상
- 오페라 〈라보엠〉 〈피가로의 결혼〉 〈신데렐라〉 〈파리여인의 삶〉 〈등불에서의 결혼〉 등 주역
- 오라토리오 바흐 〈Actus tragicus〉, 뒤큐풀레 레퀴엠, 포레 레퀴엠, 샤르평 티에 〈Messe de minuit〉 등 솔리스트 출연
- 슈만 연가곡 〈시인의 사랑〉 프랑스 말로극장 전곡 연주, 베를리오즈 연가곡 〈Les nuits d'été〉 프랑스 말메종 오케스트라 협연 연주, 창원시립교향악단, 진주시립교향악단 협연 등 다수 연주회 출연

마산, 바다에서

이경주 시조시인

바다는 푸르다

바다에는 섬이 있다

바다 저편에 그리움이 있다

바다는 그렇게 서슬 푸른 하늘빛을

한없이 넓고 깊은 가슴팍에 품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빛을 다 담을 수 없다

그 시퍼런, 날 선 눈빛으로 마주할 뿐이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빛금 친 색깔들이

뭍에서는 잿빛의 가녀린 숨을 쉰다

해가 뜰 때나 질 때 간당간당

불안한 담벽에 우두커니 기대서거나

으스러진 낡은 지붕 위로

섬처럼 등등 떠다닌다

그곳이 마산이다

짙은 코발트 빛 바다를

품고 사는 곳이 마산이다

차마, 떠날 수 없는 시간이 모여들어

야트막한 산언덕에서 맞이하는 곳

지금도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마산이다.

여백의 美

노갑선 수필가

별빛이 쏟아진다. 구름 한 점 없는 쪽빛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난다. 북두칠성은 평소에 보았던 별과는 달리 아이 주먹만큼 크고 가깝게 느껴진다. 자정이 넘은 시간 광활한 초원에서 별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는다. 삼십 년 지기 친구들과 오감을 깨우는 환경에서 심신을 내려놓으며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하다.

이른 아침 초록빛 풀밭을 걷는다. 군락을 이룬 야생화와 에델바이스가 영롱한 이슬을 머금은 채 앙증스런 꽃잎을 연다. 깨알 같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린 들꽃, 척박한 땅에 납작 엎드려 환경에 적응하며 질긴 생명력을 보여준다. 게르 주위에서 풀을 뜯던 가축들은 무리를 지어 새로운 곳을 찾아 이동 중이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그들이 남긴 배설물은 거름이 되어 땅속에서 새 생명을 키울 것이다. 풀은 자라 동물의 먹이가 되는 자연의 순환법칙으로 이어지리라.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원뿔 모양의 전통 가옥인 게르에 들렀다. 첫돌이 되지 않은 손자에게 죽을 먹이던 여인이 웃음을 띠며 우리를 맞이한다. 게르 가장자리에 침대와 음식을 할 수 있는 도구, 길쭉한 나무 의자 등이 놓여 있다. 한가운데 설치된 난로 연통은 천정을 뚫고 밖으로 향한다. 가구가 둥글게 배치되어 어느 각도에서도 눈을 맞출 수 있고 여백의 미가 느껴진다. 좁은 공간이지만 넓게 활용하는 그들만의 단출하기 그지없는 삶의 방식을 엿본다. 최소한의 생활필수품만을 지닌 채 살아도 그들은 행복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유목민들의 생활에서 삶의 지혜를 배운다. 채우기에 급급했던 생활에서 비움의 미덕을 생각하게 된다. 살아온 날들 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나이다.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갈 때도 빈손이라는 생각을 잊고 살았다. 요즈음 들어 가까운 지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평생 곁에 있을 것 같던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허망함을 느끼게 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나도 거리낌 없이 갈 수 있게 서서히 주변을 정리하고 비워야겠다. 비움은 자유로움과 여유, 정신의 안식이 아니겠는가.

대자연의 품에 나를 내려놓는다. 싱그러운 풀냄새가 온몸을 휘감는다.
텅 빈 마음에 별빛이 내리고 있다.

내 손끝에 맷히는 땀은 Money?

말글손 時人 장진석 아동문학가

배움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재학,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현재	모든문제연구소장, 경상남도인재육성개발원 대표이사, 인사이트(학지사심리검사연구소) 창원 대표, 라온문화예술교육원·초록소비연구소 이사·미래교육문화연구소 이사
역임	말글손교육문화연구소장, 작은도서관 다미 관장, J&K 영어학원장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활동 : 창원시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전문컨설턴트, 창원시 문화도시 추진위원 외 다수, 경남도청·교육청 통합교육추진단 교육공간혁신 위원 외 다수, 경남개발공사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시민혁신 위원, 경남교육청 교육감 공약평가 위원, 경남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위촉 위원외 다수, 팔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 및 공동육아 매뉴얼 개발위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생활문화매개자·예술인파견 활동 • 시민기자 및 모니터단 : 시민기자경남교육청,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창원시청, 고성군청, 교육부, 경남도청 외 • 문화활동 : KNN 행복한 책읽기·TBN 끌리는 사람 출연, 경남문인협회·마산문인협회·경남아동문학회 사무처장, 서천문학
저서	『하루 48시간』『감도둑 잡아라』『시시콜콜 잡다한 이야기』『꿈보다 해몽』
수상	효행모범상, 좋은부모상, 교육부장관·경남도지사·창원시장·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표창, 경상남도경찰청장·창원교육장 감사장,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장·경상남도교육감·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상장, 아동문학 신인상(서정문학), 각 기관 및 기업 공모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외 총 70여 회 이상 수상



들어가며

세상은 변합니다. 도시도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나누고, 글로 남기고, 손으로 만들어 갑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꽃이 맺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고 다시 열매는 땅으로 돌아 무한 순환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은 변합니다. 제 모습으로 났지만,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변화가 더디게 더디게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변화가 빠르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기술은 발달하고, 삶은 편해졌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쾌적하게 여름을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논에서 모를 내고, 피를 뽑던 시절은 언제 가고, 기계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리어카를 끌고 다니던 시절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날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마나 이런 물질의 변화는 눈으로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정신은 변하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이토록 빨리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사는 듯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즘 선생님들께서 커피나 차를 한잔 드실 경우, 또는 만남이 있을 경우 어디에서 주로 모이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카페라는 곳을 선호하실 겁니다. 카페에서 커피와 차를 제공하는 일을 하시는 분을 무엇이라 부르는지요? 네. 바리스타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어르신들도 바리스타 체험이나 자격과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따님이 계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봐 주세요.

만약, 우리가 충분한 재력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님께서 경치 좋고 위치가 좋은 곳에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사업계획서도 완벽하고, 성공은 불 보듯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따님이 좋은 카페를 운영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혹여 이 중에서도 아담하거나 잘 만들어진 카페를 운영

하며, 글을 쓰고 싶은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문화공간과 카페가 혼합된 그런 곳으로 말이죠.

자, 그럼 불과 얼마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5년,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커피를 어디서 마셨는지요? 네. 그때는 다방이란 곳에서 커피와 차를 마셨습니다. 다방에서 커피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요? 마담, 레지 등 지역과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따님이 다방을 차리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일례라 하겠지만, 고객에게 커피를, 차를 제공하는 직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급격하게, 그리고 많이도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은 말이죠.

문학의 본질은 노동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힘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의식과 물질이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의식과 물질이 상생하는 출구가 바로 노동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먹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노동의 대가는 땀이고, 땀의 대가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산물(돈)입니다. 몸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이 가치를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잣대대로 노동을 구분하지만 이는 칼로 물 베기와 같습니다. 모든 일은 먼저 정신적 작용이 있고, 이후 육체의 힘이 따릅니다.

문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의 작용이 손끝에 땀으로 맷힐 때 비로소 하나의 결정이 됩니다. 농부의 정신이 손끝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우리는 쌀 한 톨을, 배추 한 포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문학은 노동의 산물입니다. 백일장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 올려보십시오. 백일장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 나와야 하고, 어떤 시제가 나올지 궁금해 하며 기다려야 하고, 불편한 자리마저 감수하고 앉아 하늘을 보며 글을 생각합니다. 손끝에 힘을 주고 연필을 굴려가며 자신의 생각을 써 내려갑니다. 이 얼마나 가슴 저린 순간입니까? 시간의 투자, 생각의 노동, 육체의 노동에서 한 땀 한 땀 흘러나오는 글이 어찌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저 앉아서 글을 쓴다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야 글을 쓴다는 말도 옳

지 않습니다. 글은 정신을 통해 생성된 힘이 엉덩이의 힘을 빌고, 손끝에 맷히는 땀이라는 노동의 산물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작가를 존경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작가는 존중받습니다. 아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인이, 수필가가, 소설가가, 아동문학가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좋은 생각의 힘을 손끝의 힘으로 밀어내는 작가가 필요합니다. 문학가가 필요합니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사람은 누구라도 작가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돈은 존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돈, 많은 분들이 돈 좋아하십니다.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이 권력이며, 자본이 명예가 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애써 노력합니다. 때론 처절하게 보일 정도로 돈에 집착합니다. 누군들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파트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며, 자녀를 키우는 세대는 교육비가 없다며 난리입니다. 남은 생을 위해 노후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요? Money가 뭘까요? 돈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다 풍성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배가 고프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이 마르다고 해서 돈을 마실 수 없으며, 배가 고팠다고 해서 돈을 씹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시원한 물 한 잔이, 배가 고프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가 한 대 필요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가장 쉬운 대답은 돈을 주고 차를 사는 것입니다.(물론 대부분은 외상으로 산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하지만, 선생님들의 친구 중 누군가가 자동차 생산 회사를 운영한다면 차를 한 대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냥 한 대 줄 수도 있겠지요. 차가 필요하다는 목표는 돈이라는 수단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집도 우리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변질되어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으로 집을 지어 살 수도 없는데 말이죠. 나에게 도움을 받은 누군가가 고맙다고 집을 선물로 준다면 어떨까요? 집을 사기 위해 돈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존

경하는 이웃과 늘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문학도 이런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싹이 튼다고 믿습니다. 요즘은 작품 활동도 돈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서점가를 점령하다, TV에 나온 유명한 작가 등 출판 시장도 돈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책은 몇 백만 부가 팔렸다더라 등 질투의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강사로 일하다 보니, 좋은 책 한 권 내어 유명해지면 많이 불려 다니겠구나! 하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몸값도 더 높아지겠고, 상도 많이 받아서 인기가 있었지만 방귀 좀 뀌며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 말이죠. 글을 쓴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햅병아리가 욕심은 참 많았습니다. 나보다 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처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옆도 보지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욕심 부리는 만큼 앞으로 쭈욱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쫓고 싶었던 돈은 알고 보니 생명을 지녔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생명 말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돈도 고이면 썩습니다. 사람도 고이면 썩습니다. 고여 썩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살아 움직이는 물처럼 살아야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문학이다

물은 흐리고 나면 흔적이 남습니다. 씨앗의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흔적을 남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 가지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게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무용이든, 조각이든 그 무엇이든 말이죠. 첫째는 자신을 위해,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셋째는 사회를 위해 남긴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문학이 됩니다. 한 편의 시가 되고, 한 편의 수필이 되고, 한 편의 소설이 되고, 한 편의 동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요? 오늘도 조용히 손끝에 땀이 흐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들국화라는 꿈

서성자 시조시인

두어 계절 자다 깨어 이름 없이 살고 싶네

이마에 뚝뚝 지는 희푸른 하늘 덮고

마음 속 깊은 곳을 두드려 슬픈 소리* 흘리다

과거도 미래도 무연한 마을을 만나

단풍물 숲길 같은 사내 하나 얹어서

삼백 날 난봉꾼의 여자로 울며불며 살아도 좋아

행여나 미련처럼 이름 한 줄 받는다면

그대 손에 감기어 생목으로 둉굴다가

좋은 날 잘 마른 향으로 죽어 살면 좋겠네

그리운 역

김교한 시조시인

낭송 박소정 창원시민

우리들은 언제부턴가

큰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인내하며

멀리 보고 가야 했다

아쉬움 참아 가면서

세월 앞에 성찰해 왔다

고향길 하나 되게

그대가 있어 가능했다

비 오고 바람 불어도

자국 놓고 오가는

언제나 그리운 노래가 울릴

광장은 기대가 크다

*나쓰메 소세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

이를테면, 종착역에 눈이 쌓이고

김인애 시인

당신은 이를테면,

내 언어의 아가미가 육각수의 단단한 비늘을 풀고 마지막 숨을 고를 수 있는 종착역, 내 희푸른 노르딕패턴 비애의 모서리가 당신의 따습고 두터운 손에서 둥근 숨을 후우 쉰다 연탄 같은 언어들의 구멍을 맞추고 배열하다 묻은 깅장 이 서로의 얼굴을 지우고 깅장을 치대듯 매치고 엎어 치고 주무르다 묻은 감정 의 젖국물이 마음 지평에 경계 모호한 페이즐리 무늬를 남긴다 당신은 젊어지기 를 열망하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여인을 사랑한다 말하는 방식의 당신을 흔들 어 나를 두드린다 두 발 끝에 힘을 모아야 졸깃해지는 깊은 생의 비의를 이를테 면, 으로 일갈한 끗 사람들의 가슴에 있던 당신의 족적을 꺼내 내 심장에 흰도로 아로새긴다

진반을 터치하지 않아도 울려오는 멜로디의 영혼 혹은 영혼의 멜로디,

천형의 그리움

천년의 세레나데로 내리고 덮이고 쌓인다

백야, 모든 날의 종착역인 이를테면, 당신

빵과 철쭉꽃

윤진철 수필가

어린 시절, 들판에 보리가 팥 무렵이면 우리 집 쌀 뒤주에 바닥이 훤히 보였다.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는 먹을 것이 없는 춘궁기가 시작된 것이다. 어머니는 쑥을 뜯어 밀가루에 버무려 쪘서 가족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었다. 지금도 ‘쑥 털털이’의 달짝지근한 맛이 그립다.

이맘때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시린 기억이 있다. 학교에 입학하여 빵을 처음으로 맛보았던 날을 잊을 수 없다. 삶은 콩이 씹히던 고소한 옥수수빵,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껍질이 기름기로 반질반질 윤이 났다. 오전수업을 마치는 종소리가 울리면 노란 사각 통에 담긴 빵이 배식되었다.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동생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빵을 손수건에 고이 싸서 책상 안에 넣어두었다.

학교를 마칠 때쯤이면 동생들이 손을 맞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늦게 마치는 날에는 동네 어귀에서, 또 어떨 때는 못자리 논둑길로 마중을 나왔다. 손수건에 곱게 쌈 빵을 펼치면 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먹는 모습에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 그날 이후부터 급식 빵은 손수건에 곱게 싸여 동생들의 손으로 배달되었다.

가끔 “빵을 왜 안 먹니”라며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런 날에는 급식 빵은 두 개가 되었다. 아이들 모르게 선생님께서 슬그머니 책상 서랍에 넣어 놓으시곤 했다. 빵이 두 개가 된 날은 내가 큰 부자가 된 듯하였다.

앞산을 물들인 진달래꽃이 진 뒤에 핀 철쭉꽃은 유난히붉었다. 초록색 꽃받침이 다섯 개로 갈라지고 둥글고 오목하게 연분홍 꽃잎을 피웠다. 그날은 청소 당번이라 늦게 집으로 향했다. ‘큰골’ 못자리로 향하는 고사리손에 급식 빵을 쌈 하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산길 초입에는 순한 찔레꽃 향이 퍼지고 산벚나무 꽃잎이 흘날렸다. 저 멀리 논두렁에 아버지의 지게가 보였다. 나는 큰소리로 “아버지”하고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일손을 놓고 계시던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 첫째 동생과 막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평소면 와락 달려들어 “빵은 어디 있어”라며 소리치던 막내도 빵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동생이 보이지 않았다. 첫째가 울음을 터뜨릴 때쯤에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싸

여름 하늘, 새벽 구름

우무석 시인

리나무로 만든 바지계에 여동생이 가지런히 눕혀 있었다. 급식 빵을 기다리다 지친 동생들이 배가 고파서, 독성이 있는 철쭉꽃을 진달래꽃으로 착각해 따서 먹은 뒤 쓰러졌다고 했다. 그중 둘째 여동생이 마비증세로 깨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차편이 끊어져 병원에도 갈 수 없다.

별들이 구름 속에서 숨바꼭질하듯 긴 하루가 지나고 늦은 오후에서야 여동생이 깨어났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의 첫마디가 “오빠야, 빵”이었다. 둘째 여동생이 무사히 깨어남으로써 온종일 마음을 졸였던 우리 가족은 비로소 잊었던 웃음을 되찾았다.

희망이 빵처럼 부풀어 올랐던 단란했던 시간, 난 그 봄날의 추억을 영원처럼 잡아두고 싶다.

먼동 트는 여름 하늘에
둥글고 새하얀 구름 맷 덩이
징검돌처럼 놓였다
마악 푸른빛 도는 산능선 위에서
희끗한 반달이 제 얼굴 지우는 사이
서녘 하늘길 따라
새 한 마리 날아가다가
구름덩이 톡톡 건드리자
구름의 살들 후드득 후드득 풀어진다

새벽 하늘이 그려낸 상형문자의 필사본
그 깊디깊은 황홀한 묵시
하늘이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애써 잊었던 병명만 생생해진다

